

우리 농축산물먹기 운동은 “제2의 물산장려운동”



박 노 원 목사
(우리 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태평양 건너의 거인 골리앗에 의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 수입개방 압력이 폭풍처럼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요즈음 농민들은 농사 짓고 가축기르기보다 서명 받는 일에 더욱 열심이다. 얼마전에는 쌀수입 반대 천만명 돌파를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하더니 이젠 축산물 개방반대가 4백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땅을 갈고 지킬 농민들이 거리에서 어떻게 농사짓고 짐승을 기를 수 있을까?

지난해에는 농민들이 농사지어 갈무리해 두었던 무우를 트랙터로 몽땅 갈아 엮어서 황토밭 위에 무우들이 허영계 속살을 내밀고 뒹굴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감자와 양파는 썩어만 가고 있어도 아무도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언제나 단골로 등장하는 쇠고기 파동의 조짐도 일고 있다. 소값이 하늘같이 치솟으면 언제 또 개값처럼 떨어질지 몰라 농부는 밤잠을 못잔다.

요즈음 도시사람들은 갑자기 늘어난 “쇠고기 부패집” 때문에 어리병병하고 있다. 무차별 수입 되는 쇠고기, 양고기, 칠면조 등의 온갖 수입고기들을 무제한 먹어치운 뒤에 단돈 5,000원이나 6,000원으로 대량 바겐세일을 하는데 놀라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사탕발림에 온 나라가 넘어가고 있다.

수천년을 이 땅을 지키고 이 백성을 지켜온 농민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것은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의 엄청난 대가를 농민 혼자서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수입된 농축산물은 7백여가지 품목에 1,500만톤으로 자그마치 56억달러(4조억원)였다. 이렇게 된 결과로 우리 국민이 먹는 식량의 100일분 밖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

“

우리 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은
제2의 물산장려운동이다. 최근 호화고가 외제
수입품들만이 불티나게 팔려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 농산물들만은 절대로 도시소비자들이 사 먹지
말아야 한다. 국가 경제나 농민보호나 문화 보전의
차원을 넘어 소비자 스스로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이다.

”

260일분은 수입해다가 먹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이 값싸고 질 좋고 건강한 식품이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농축산물은 우리의 식량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생명을 위협한다. 장기간 보관운반되는 외국 농축산물은 농약공해에 속수무책이다. 또 '87년에는 소련 체르노빌 방사능 누출사고로 오염된 지역에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사용했다는 우려도 있었다.

수입 농축산물은 자립경제를 파괴하고 우수한 문화를 상실케 한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 서 신토불이라 했다. 이 땅 이 기후 이 백성에서 알맞는 식품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은 제2의 물산장려운동이다. 최근 호화고가 외제 수입품들만이 불티나게 팔려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 농산물들만은 절대로 도시소비자들이 사 먹지 말아야 한다. 국가 경제나 농민보호나 문화 보전의 차원을 넘어 소비자 스스로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이다.

「우리 아이는 통 김치를 안먹어요! 냄새도 싫어해서 함께 식사하기가 민망할 정도지요. 햄이나 치즈는 잘먹는데 떡이나 식혜는 안먹어요. 콜라나 빵, 피자는 먹어도 된장이나 고추장은 질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애가 정말 내 아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는 주부의 말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이제는 소비자 스스로 나에게 무엇이 좋은 식품이고 건강에 좋은 식품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좀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수입 농축산물의 안정성 여부는 접어두고서라도 우리가 우리농민의 손으로 키워낸 농축산물을 먹는 것은 결국은 도시민 즉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 이용을 통해서 국가 자립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우리 문화와 삶을 풍요하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애국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고, 농민을 돕는 길이며, 심각해져 가는 도시의 빈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